

## 전체 주제:

### 하나님의 뜻

(주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 주님의 멍에(아버지의 뜻)를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음

성경: 창 1:26, 31, 2:1-2, 마 11:28-30, 출 31:12-17, 사 1:1, 2:1, 13:1, 15:1

- I.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 마 11:28-30.
- A. 여기서 수고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킨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 B. 주님은 아버지의 길을 인정하시고 신성한 경륜을 선언하시면서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신 후에 (마 11:25-27), 이런 사람들을 그분께 나아와 안식하라고 부르셨다.
  - C.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킨다.
  - D.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나 종교의 어떤 의무에 규제되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에 제한 받는 것이다.
  - E.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다만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다(요 4:34, 5:30, 6:38).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다(마 26:39-46).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 1. 믿는 이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인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수고함으로써 그들의 영 안에서 주님을 복사한다 — 마 11:29상, 벰전 2:21.
    - 2. 일생 동안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신 주님은 그분의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 빌 2:5-11, 히 5:7-9.
    - 3.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시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하나님으로 지극히 만족하신 주님께 배워야 한다.
    - 4. 하나님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히 13:20-21).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빌 2:13).
  - F. 온유하다 혹은 온화하다는 것은 반대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겸허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모든 반대 가운데서도 온유하셨으며, 모든 배척 가운데서도 마음이 겸허하셨다.
  - G.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무엇인가를 얻으시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

- 서도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만족하셨다.
- H. 주님의 명에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만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이다.
  - I.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통하여 주님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 엡 4:20-21, 벧전 2:21.
  - J. 주님의 명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 명에는 편하여 결코 괴롭지 않으며,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
  - K. ‘편하고’에 대한 헬라어는 ‘용도에 꼭 알맞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렵고, 엄하고, 날카롭고, 괴롭고’와 대조되는 ‘좋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편하고, 유쾌하고’를 의미한다.
  - L. 우리가 주님의 명에(아버지의 뜻)를 메고 그분께 배운다면,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명에는 이와 같다. 즉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누림이다.

**II.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관한 긴 기록 이후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반복해서 말한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안식의 실재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완성과 안식과 평온과 완전한 만족이시다 — 히 4:7-9, 사 30:15상.**

- A.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명령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삽입 부분이 뒤따라 나온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건축자들 곧 일꾼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어떻게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셨음을 알려 준다.
- B.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일하는지만 알 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신성한 원칙에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1.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완성하시고 만족하셨으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정복되도록 그분의 권위가 행사되려는 참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안식하실 수 있다 — 창 1:26, 31, 2:1-2.
  2. 후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정해져 기념이 되었다(출 20:8-11). 하나님께 일곱째 날이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었다.
  3. 하나님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사람은 창조된 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4. 사람은 먼저 일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비교 마 11:28-30).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막 2:27).
- C. 출애굽기 31장 17절은 “이는 여호와가 육 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1. 안식일은 하나님께 안식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었다.
  2.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 곧 하늘들과 땅과 모든 생물들,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다(창 1:31).
  3.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 상쾌해지셨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였다 — 창 1:26, 2:7, 비교 요 4:31-34.
  4.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혼’이셨다(비교 창 2:18, 22).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표현함으로 그분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셨다(고후 11:2, 엡 5:25). 영원 미래에 하나님은 한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얻으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어린양의 아내라 불린다(계 21:9-10).

5. 사람은 상쾌하게 하는 음료와 같이 하나님의 목마름을 풀어 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끝마치시고 안식하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을 그분의 동반자로 얻으셨다.
  6. 하나님께 일곱째 날은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 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반자인 사람에게는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 날이 첫째 날이었다. 즉 사람의 첫째 날은 누림의 날이었다.
- D. 우리가 누림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신성한 원칙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가진 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갖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통해 성취하신 것을 누린다.
  2.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그 영으로 채워졌는데, 이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그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포도주로 취했다고 생각했다 — 행 2:4상, 12-13.
  3. 사실상 그들은 하늘에 속한 포도주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다. 오직 이러한 누림으로 채워진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오순절은 여덟째 주의 첫째 날이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과 관련해서 우리는 첫째 날의 원칙을 본다.
  4. 하나님께 이것은 일하고 안식하는 문제이지만, 사람에게는 안식하고 일하는 문제이다.
- E. 성막을 건축하는 일로 예표된,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가 일하기 위한 힘과 수고하기 위한 에너지가 되실 것이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지켜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2.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드로는 속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 곧 속을 채워 주시는 영에 의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시를 가졌고, 그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되었다 — 행 2:14.
  3.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런 다음 우리를 채우시는 바로 그분과 함께 일한다는 표시를 지켜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들로서 일한다는 표시를 지켜야 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을 공급하기 위한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시라는 표시를 지니기를 항상 추구해야 한다 — 고후 13:3, 행 6:4.
- F.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한 영원한 계약 혹은 언약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 되어 일함으로 그분과 하나 될 것을 하나님께 보증하는 것이다 — 출 31:16.
1. 주님을 마시고 먹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누리지 않은 채, 우리 스스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엄중한 문제이다 — 비교 고전 12:13, 요 6:57.
  2. 베드로는 오순절 날 말씀을 전할 때에 내적으로 예수님께 참여하면서 그분을 마시고 먹고

있었다.

- G. 안식일은 또한 거룩하게 되는 문제이다(출 31:13).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그런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하나 됨으로 일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즉 속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육체에 속하고 타고난 모든 것을 대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적셔진다.
- H.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많은 일들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봉사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고 몸 안에서 교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출 31:14-15).
- I. 하나님의 거처와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를 한 가지 것, 곧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상쾌하게 되시는 안식일로 이끈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성막 안에 있으며, 성막은 우리를 안식으로, 곧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에 대한 누림으로 이끈다!

### III. 주님의 멍에(아버지의 뜻)는 편하고, 주님의 짐(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은 가볍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에서 받은 부담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

- A. 하나님께 열린 영은 하나님에게서 부담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부담을 받고 부담을 해방하기를 배워야 한다 — 눅 1:53, 시 27:4, 사 59:16, 골 4:2.
- B. 신언자들이 받은 계시들은 그들이 받은 부담들이었다. 부담이 없으면 교회의 건축을 위한 말씀의 사역, 곧 신언하는 것이 없다 — 사 1:1, 2:1, 13:1, 15:1, 스후 12:1, 말 1:1, 행 6:4, 고전 14:4하.
  - 1. 우리의 부담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해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 해방된다 — 고전 2:11-16.
  - 2.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말의 주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느냐의 여부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으면,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담이 있어야 한다 — 말 2:7.
  - 3.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상태를 짚어지고, 사람들의 상태를 감지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 출 28:29-30.
- C. 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님께에서 받은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 1. 부담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죽은 것이 되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 부담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 있고 번성할 것이다.
  - 2. 부담을 가질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처리받는다. 부담이 있으면 자아가 감소되고 처리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부담으로 인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먼저 처리를 받아야만 우리의 부담을 해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 3.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봉사하기보다 의무에 따라서 봉사한다면, 이러한 봉사는 주님의 임재를 잃게 할 것이다 — 비교 신 4:25.
  - 4. 언제든지 우리의 봉사가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가 되면, 우리의 봉사는 이미 타락한 것이다 — 말 3:14과 각주 1.
  - 5.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주님의 일을 예표하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을 누림으로 시작해야 하고, 틈틈이 하나님을 누려서 상쾌해짐으로 건축하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 내적인 안식으로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 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의 어려움

### 가장 큰 어려움 — 부담이 없음

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부담의 결핍이다. 다시 말해서 부담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부담에 주의하지 않는 것이다. 아마 장로들은 교회의 행정을 수행한다고 말하겠지만 부담이 없이 행정을 수행할 수 있고, 형제들은 말씀의 사역을 하면서도 부담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부담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말을 잘하면 부담이 내려져서 없어지고, 말을 잘못하면 어떤 무거운 압력이 당신을 억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만일 말씀의 사역을 할 때 단지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부담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신이 잘하면 부담이 내려지고, 잘못하면 무거운 압력이 마음을 억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문제는 행정의 일을 잘했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효과가 있었느냐에 있고, 그 일이 사람들의 중심을 만졌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그럴 때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 줄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듣고 난 후에 어떤 결과가 산출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당신이 말씀을 잘 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감동을 받았느냐의 문제도 아니며, 더욱이 당신이 메시지를 얼마나 조리 있게 말했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듣고 난 후에 어떤 결과를 산출했느냐이다. 만일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부담을 받아야 한다. 즉 그들을 품고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을 그들 속에 심어 주어야 한다. 당신이 받은 부담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 부담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려고 하지 않으며 주님의 처리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고 주님의 처리를 받아들이도록 만들 부담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담을 가지고 말씀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주일에 전하는 말씀의 사역은 쉽게 예배를 드리는 지경으로 떨어질 것이다. 매주 사람을 안배하여 한 편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주일 오전에 말씀의 사역을 유지하고, 정오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며, 저녁에는 다시 와서 떡을 떤다. 이러한 광경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에 직면할 때 반드시 부담을 받아야 한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 자신은 아마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느낌도 없겠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느낌이 가득해야 한다. 그들은 매우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방해'하고 '불편하게' 할 부담을 받아야 한다. 비록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왔지만 '편안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내적으로 방해받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단지 듣기 좋은 말씀을 들려주거나 조리 있게 말하고 메시지마다 성경에 부합되게 말하지만, 사람들이 매번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그들에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우리에게도 그다지 아쉬운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그들이 우리를 성의 없이 대한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들을 성의 없이 대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만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성의 없이 대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성의 없이 대한다면, 이것이 바로 소위 타락한 기독교의 상황인 것이다. 말씀을 듣는 교우들이 목사를 성의 없이 대하고 목사가 말씀을 듣는 교우들을 성의 없이 대하면, 해가 갈수록 이 둘은 서로를 성의 없이 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매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 안에 있는 편안한 느낌들을 괴롭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소위 부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완전히 미지근한 상태인데도,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상황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들이 듣기에 편안한 말씀만을 계속적으로 들려준다고 하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편안할 수 있으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당신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먼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시게 해야 한다. 당신은 부담을 받을 때까지 며칠 동안이고 잠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게 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당신이 말씀을 전하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될 것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다. 각지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는 형제들이 피해야 할 것은 내용도 있고, 소재도 있으며, 논리도 정연하고, 또 많은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할 줄은 알지만, 오히려 부담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의 사역을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는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죄이다.

###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부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

구약에서 신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때 중국어는 이를 ‘목시를 언다’(사 13:1)라고 번역했다. 원문에서 이 단어는 부담이 생겼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부담을 받고 사람들도 부담을 받도록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우리는 그가 부담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바울의 태도는 이 죄를 옹지 않다고 여길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받아 이 교회에 대한 책임과 위임을 갖고 있었다(고전 5:1-13). 그러므로 그가 쓴 서신서에서 그는 교리를 말하지 않고 부담을 가지고 그 일들을 교통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느낌을 만질 수 있었다.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타이베이 교회의 말씀의 사역은 예배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까지 하락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면서 주의하는 것은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느냐이다.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안에 부담이 있어야 한다. 부담이 실려 있는 한 편의 말씀은 어찌면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속에서부터 사람들을 격동시킬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만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듣기에는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감상만 줄 뿐 사람을 만질 수 없고, 사람을 속에서부터 변혁시킬 수 없으며, 참되게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일 지라도 현재 하나님께서 부담이 있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의 사역은 단지 메시지의 소재만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편리하고 값싼 것이 아니다.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짚어지는 사람이다. 그가 삼사백 명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에게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감지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훈련을 통해 도움을 받았지만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것은 결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부담을 대치할 수 없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위험은 바로 훈련을 통해 받은 것들이 내적인 부담을 대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가 부족하고 영적인 부담이 부족하다.

###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사람들의 상태로 인한 간절함을 가져야 함**

타이베이 교회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일 년 오십이 주 동안 나는 형제들이 매번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심지어 금식 기도까지 하는지 궁금하다. 물론 이 말은 형제들에게 율법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형제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담을 짚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혼을 짚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성도들이 매주 집회에 와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그들을 짚어져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삼 개월 동안 말씀을 전한 후에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떤 결

과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편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이 주 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아 장사를 못하면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고, 삼 개월 동안 돈을 벌지 못하면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들은 염려로 가득하고 조급하게 될 것이다.

사업을 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사업과 관련된 일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때가 있다. 그럴 때 사실 나는 그들의 부담을 만질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이 내 앞에 앉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들 안에 있는 무거운 부담을 만질 수 있으며, 그들이 처한 사업상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는 형제들에게 이러한 염려가 있는가?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수많은 혼들이 삼 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여러분의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무런 염려가 없단 말인가? 만일 우리가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한다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든 오지 않든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태평스럽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틀림없이 즉시 대책을 세우고 연구한 뒤 출로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사업을 하는 형제들도 장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부담을 갖는데,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담도 갖지 않은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전할 사람을 안배하여 성경을 조금 읽어 주고 메시지 한 편을 전하고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결과도 낼 수 없다.

나 형제님은 푸저우(福州)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 복음 집회를 위해 금식 기도를 했다. 형제님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며, 또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고려했다. 가련한 혼들의 상태를 고려하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거듭 고려했다. 형제님이 깊은 부담을 짊어지고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음 날 말씀을 전할 때 큰 효력이 있었다. 형제님은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 후에 그 말씀들을 문서로 출판했다. 오늘날 주님께서 쓰시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부담을 짊어지고 말씀의 사역을 수행한다. 왕페이전(汪佩眞) 자매님은 과거에 상당히 큰 부흥을 일으켰다. 당시 그녀는 젊은 자매였는데도 항상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긴 시간 동안 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다. 그러므로 그녀가 일어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은 모두 살아 있었고 효능이 있었다.

### 부담 있는 봉사

현재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담이 너무나 겹쳐져 있다. 무엇을 가리켜 부담이라고 하는가? 부담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해 놓은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것이고, 반드시 어떤 상태에까지 이르겠다는 것이다.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에 속에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담이다. 무엇을 가리켜 부담이 없다고 하는가? 일을 하기는 하지만 잘 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성과가 있든 없든 개의치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부담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결코 이러한 상황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말씀의 사역에 임하는 모든 형제들은 반드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주님 앞에서 내적인 느낌을 도저히 지나칠 수 없고 마음 편히 잘 수 없어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마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온 예루살렘성이 불안해했던 것과 같아야 한다(마 2:1-18). 주님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성도들을 불편하게 해야 하며, 그들이 내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이 불안하면 여러분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성도들은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집회에 와서 미지근한 두 가지의 상태를 모두 가져서는 안 된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마치 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같아서, 매일 고정된 시간에 출퇴근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한다. 비록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회사가 이익을 내는지 혹은 적자를 내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담이 없는 직원이고 또한 부담이 없는 봉사자이다. 만일 오늘 당신이 길에다 조그마한 좌판을 벌이고 장사를 한다면 하루만 장사가 안 되어도 즉시 내일의 생활을 염려할 것이다.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며 염려하게 되고 불안해질 것이다. 만일 봉사를 하는 형제들이 어린이의 일이든 청년의 일이든 막론하고 모든 일에서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연약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말하며 부정적으로 원망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부담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해 줄 뿐이다. 봉사하는 각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낄 정도로 부담을 가져야 한다.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잠잘

때조차도 장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야 한다.

### **책임 때문에 하는 봉사와 부담 때문에 하는 봉사를 분별함**

비록 각지의 장로들이 모두 신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 앞에서 받은 부담을 갖고 자신이 봉사하는 지방의 지역 집회들에서 사람들이 만족해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집회의 상태가 강한지 약한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풍부한지 빈곤한지를 관심해야 한다. 우리는 상황이 하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각지의 지역 집회 책임 형제들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장로들은 그럴 수 없다. 장로들은 단독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함께 동역함으로 한 부담을 갖고 지역 집회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야 한다. 장로들은 성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집회에서 부담에 따라 성도들이 속에서부터 불편하도록 말해야 하고 그들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할 수 없도록 말해야 한다.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배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장로들은 이러한 부담을 가져야 하며, 단지 책임 때문에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단지 각 지역의 상황에 대하여 교통하고 토론하거나, 각 지역을 돌아본 후에 다음번 장로 집회에서 보고하고 연구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비록 이런 방법이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 까닭은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장사는 결코 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 이는 마치 우리가 스물여덟 개의 지점이 있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같다.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일 년에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것은, 단지 회의를 하면서 토론하고 보고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토론하고 보고하는 것은 단지 책임을 다하는 것일 뿐 결코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부담을 갖고 일하는 방식은 목표를 갖고 일하는 것이다. 올해 사천만 원의 수익을 목표로 했다면, 내년 말에는 팔천만 원의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낡은 기계를 새 기계로 바꾸어야 한다. 올해에는 이십 퍼센트의 고객 확보를 목표로 삼고 내년에는 나머지 팔십 퍼센트의 고객 확보를 목표로 삼아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고자 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담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다.

교회의 행정이나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형제들이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 방면에서 형제들에게 부담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담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 죽어 있고 효과가 없다. 부담이 있을 때에야 살아 있고 활력이 있게 된다. 문제는 방법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 **부담이 있는 봉사를 할 때 '자아'가 처리받게 됨**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할 때 공부에 부담이 없고 단지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라면, 영원히 공부를 잘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부담을 갖게 된다면 공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어떤 때 형제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책임 때문에 전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전할 뿐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부담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반년 동안 말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서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고 당신은 헛되이 설교한 것일 뿐이다. 만일 당신이 부담을 가졌다면 당신은 주님 앞에서 당신이 말한 것이 효력이 있음을 즉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이 말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 불편을 느끼도록 할 것이며, 당신이 말한 것은 속에서부터 사람들을 격동시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이 과정 가운데서 당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많은 부분이 만져지게 될 것이다. 책임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신을 처리할 필요가 없지만, 부담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직원처럼 아침 아홉 시에 출근하고 저녁 여섯 시에 퇴근하는 것은 책임의 문제로서 아무것도 처리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 장사를 책임져야 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마도 당신은 반드시 더욱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잠을 좋아하는 당신의 성격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경리나 직원이라면 고객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고, 고객을 대할 때의 태도를 처리



해야 한다는 느낌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가게를 연다면, 모든 고객에 대한 태도가 진지해질 것이고 그들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할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어떤 형제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처리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전보다 더욱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책임만 있고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에게 부담이 있다면 당신의 '자아'는 결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할 것이며 또한 처리받을 것인데,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부담이 당신이 어떤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떤 일들은 당신이 처리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부담을 해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사람들은 부담 때문에 가장 많은 처리를 받는다.

한 청년이 가정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을 때 그는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지만, 결혼하여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은 후에는 무엇이 부지런함인지 무엇이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된다. 어린 아이는 가정에 대해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부모의 돈을 낭비하고 절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산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생활해야 할 때가 되면 예산을 세워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겨 물건을 살 때마다 자세히 계산하게 된다. 이전에 부모의 돈을 사용한 것은 책임의 문제이지만, 이제 자신의 돈을 쓰는 것은 부담의 문제이다. 오늘날 교회들의 상황은 단지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것 같다. 이것은 마치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도 갖지 않고 일하는 것과 흡사하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

### **사람마다 부담을 받아들이고 부담을 따라 주님을 섬김**

앞에서 말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각자가 부담을 받아야 하고 부담을 가져야 한다. 비록 자매들은 행정을 만질 수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자매들이 교통하고 사람들을 방문할 때 단지 나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합당치 않은데, 이것을 가리켜 책임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그러한 교통과 심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이 관심하는 가정주부들과 청년 자매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여러분은 모든 일을 주님께 미루고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지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논조는 단지 한 방향만을 본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참된 부담을 받아야 한다.

많은 형제자매들 안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느낌이 있지만 삼 년, 오 년, 칠 년이 지나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어떤 변화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들이 옳지 않다고 느껴야 한다. 우리는 부담을 받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왜 이토록 많은 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지 등을 연구해야 한다. 어떤 형제들은 복음의 부담을 받고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시키지 않으면 건달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칙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의 봉사가 점차 책임을 따르는 추세로 향하고 부담이 부족한 데 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부담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집회는 사실상 거의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편안하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효과가 있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례에 따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다. 교회의 행정에 있어서도 열매가 있으면 좋지만 열매가 없어도 별반 차이 없이 편안하게 지낸다. 형제자매들을 심방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마치 일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는 기도와 같고 부담이 없다. 만일 우리에게 부담이 있다면 기도 집회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기도하다가 통곡하고 걱정하며 가슴을 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의 복음과 교회 안의 행정과 집회의 상태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느낄 것이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부담에서 나온 기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쉽게 없어진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공화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담을 받는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에 있어서 항상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부담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우리의 양심이 그냥 지나쳐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담이 없을지라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하게 된다. 우리의 봉사가 단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바뀔 때, 이것은 우리의 봉사가 이미 타락했음을 가리킨다. 참된 봉사는 책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에서 나오며, 책임은 영원히 부담을 뛰어넘을 수 없다.

### 두 번째 어려움 — 동역의 느낌이 없음

우리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각 개인들이 함께 봉사할 때 모두 능력이 뛰어나지만 영 안에서 동역의 느낌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자기 혼자서도 완성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는 배우고자 하는 영이 부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영이 부족하다. 참되게 영 안에서 동역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하며, 다른 사람과의 동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매우 깊은 부담을 갖고 있다. 우리의 현재의 동역은 율법적인 동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두가 율법에 따라 당신은 당신이 맡은 것을 하고 나는 내가 맡은 것을 하며, 나에게 당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도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는 않지만, 서로 의지하는 광경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것은 바로 봉사의 영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을 돌보거나 어린이 봉사를 할 때, 형제자매들이 단지 율법적인 동역 안에 머물러 있고, 개인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며, 자신에게 일이 주어지면 그 일만 처리하는 상황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사실 이것은 동역이 아니고 기껏해야 협조일 뿐이다. 동역이란 나에게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되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며, 당신도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청년들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봉사도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은 집사들과 장로들이 서로를 필요로 해야 하고, 성도들도 장로들이 없어서는 안 되고 집사들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껴야 한다.

오늘날 장로들은 규칙과 안배에 따라 장로의 일을 하고 집사도 그렇게 집사의 일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일이 안배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봉사에 있어서 장로가 없어서는 안 되고 집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느낌이 없다. 심지어 어떤 형제들은 그들에게 장로들과 집사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수가 너무 많다고 느끼는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 가장 심한 교만

동역자들의 집에 거하는 형제자매들 중에서 특별히 형제들은 각 사람이 너무나 분명하고 일 처리도 유능하게 하지만, 마치 각 사람 모두가 독립적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한 가장 교만한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네 명의 형제들은 동역자들의 집에 거하면서 서로가 굳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접촉해도, 그 형제는 다른 세 형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냄새를 맡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오늘은 내가 복음을 전할 차례인데, 나에게 그 일이 맡겨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내가 하려고 하고, 나에게 맡겨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동역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동역은 율법적인 것이고 안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 뿐 영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동역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동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느낀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심지어 경고하고 싶다. 동역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매마른 사람이고,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며,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각 사람이 다 총명하고 재간이 뛰어나 서로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가련한 광경이다. 두려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결코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밖으로 드러난 나병과 같다면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몸의 교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주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마치 형제자매들이 외지에서 타이베이로 와서 집회를 할 때는 같이 앉아 있지만, 집회가 끝나면 각각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어떤 교통도 없는

것과 같다. 우리가 대만에 와서 생활한 처음 육 년 동안은 결코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다. 매년 특별 집회로 모일 때마다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많은 교통을 가졌다. 지금의 상황은 모두가 함께 모이지만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고, 당신이 총명한 것처럼 나도 총명하며, 당신이 이것을 알면 나는 저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마치 각자가 모두 전문가 같아서 누구도 다른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도 필요 없는 것 같다. 이것은 너무 교만한 것이고, 주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며, 몸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가진 능력을 겸손히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총명도 합당한 방식 안에서 동역 가운데 두어야 한다.

### **몸 안에서와 생명 안에서 교통하고 동역하는 것이 필요함**

만일 우리가 몸 안에서 동역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원칙을 잃어버린다면, 행정의 방면이나 말씀을 전하는 방면 모두에서 강화될 수 없을 것이다. 일단 그 원칙을 잃어버리면 자연히 축복은 없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의 동역을 보면 누군가에게 순서가 돌아가면 기계적으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다른 사람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만일 모든 이가 단지 옆에 있기만 하거나 사람들을 모아 일을 분담하여 각자 자기 일을 하게 한다면, 이것은 동아리나 혹은 어떤 큰 단체에서 분담하여 일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여기에는 몸 안에서 지체들이 동역하는 냄새가 조금도 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무엇을 가리켜 몸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가? 몸을 본 것의 가장 높은 느낌은 더 이상 단독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절박하게 몸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형제자매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동역은 사무적이고 기계적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 단체나 기관에서 사무를 보거나 기계가 움직이는 것과 같아서, 내적인 생명의 교통의 냄새가 너무나 결여되어 있다.

### **동역이 부족하게 되면 쉽게 서로 비방하게 됨**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일하면서 동역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비방할 것이다. 겉으로는 비방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는 비방이 가득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가장 가련한 사람이고 또한 가장 속이 좁은 사람이다.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서로 짝어지고 서로 의지하는 동역의 봉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밟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마치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단 걷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밟는 것과 같다. 자신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일단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뒤집어 버린다. 당신이 어떤 일을 참견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일단 참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일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으면 아무 상관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와서 당신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방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당신 자신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 원인은 우리가 아무에게도 복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사역과 일들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 똑같이 되기를 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존중해야 함**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와 똑같이 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 사람을 심방하는 것이든 혹은 생활 방식에 있어서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의견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설령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르고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기준이 아니고 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오직 주님만이 기준이시고 주님만이 심판관이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행한 것들을 존중하는 공과를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열심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의 고요함을 존중해야 하고, 내적으로 고요함 가운데서 주님과 연결되어

야 한다고 말할 때 걸로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다면, 몸은 없고 오직 당신이라는 지체만이 있을 뿐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다면, 오직 당신만 있고 교회는 없는 것이다. 교회는 다양하며 여러 방면이 있고 여러 각도가 있다. 손은 손의 모양이 있고 발은 발의 모양이 있으며 귀는 귀의 모양이 있고 눈은 눈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몸에 있는 지체들은 각양각색이다. 설령 당신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지 않은 지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몸이 필요로 하는 지체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밟지 않기를 배워야 하며, 자신이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뒤집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존중하고 그 위에 당신이 한 것을 더할 때 그 길이 바로 축복을 얻는 길이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것을 공급해야 하고,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면, 교회의 행정에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고 말씀은 강화될 수 없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봉사하고 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성도들이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출신이 다 다르며, 구원받을 때의 배경과 교회로 인도받은 때의 환경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밟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발등을 밟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당신이 움직이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의 발 위에서 움직이지 말고, 더욱이 말씀의 사역을 할 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밟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당신이 기도에 관해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묵상에 관해 말하는 것을 비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둘 다 성도들의 필요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만 당신의 주제인 기도에 관하여 잘 말하면 될 뿐 다른 사람이 묵상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밟을 필요가 없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밟는 것은 함께 봉사함에 있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당신은 기도에 관해 말하고 그는 고요히 묵상하는 것에 관해 말할 수 있으며, 그는 열심에 관해 말하고 당신은 지성소에 머무는 것에 관해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결코 이단이나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밟거나 발등을 밟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이는 당신이 매우 편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만일 당신이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당신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결국 분열을 낳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일한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건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축을 손상할 것이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을 뿐이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방면에서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대치할 수 없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발등을 밟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의 기능은 당신의 기능이고 다른 사람의 기능은 다른 사람의 기능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길에서 일하고 말씀을 해방하며 교통하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발등을 밟는 것을 절대로 피해야 한다. 함께 기도할 때 사람들의 기도를 이어 받아 상반된 말로 기도해서는 결코 안 되며,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 **어떤 방법을 고집하지 않음**

한번은 장로들이 많은 교통과 기도를 거친 후에 지역 집회에서 요한복음을 추구해야겠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지역 집회를 책임지고 봉사하는 형제가 요한복음은 스물한 장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짧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추구하여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형제가 그렇게 하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은 장로들도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일은 한 방면에서 지역의 책임 형제가 영적인 일에서 아직 공과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다른 방면에서 그 형제의 존재가 다름을 받지 못했으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경험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만일 그 형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고 오히려 데살로니가전서를 해방하는 데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면, 이는 옳은 것이다. 어떤 일을 당신에게 맡겼는데 당신에게 그 일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부담이 있다면 그 일을 포

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담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담의 문제 때문이라면 우리는 비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형제가 제기한 것은 방법의 문제로서, 스물한 장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짧은 것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밟는 것이다. 영적인 부담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매우 옳은 것이다. 그러나 방법의 문제 때문에 바꾸자고 했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장로 집회에서 결정되어 지역 집회의 책임자에게 일임한 일을 지역 집회의 책임자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를 추구하든 혹은 요한복음을 추구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장로들이 무엇을 읽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붙잡아 성경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들과 누린 축복들을 형제자매들에게 공급하면 된다.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다.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많은 경우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바꾸려고 할 때 성도들이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당신의 방법을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 어떤 때는 당신이 방법을 바꾸려고 할 때 성도들이 동의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관찮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교회의 행정적인 봉사나 말씀의 사역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서로 함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참으로 역량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면서도 그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영적인 것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형제자매들을 공급할 수 있다. 모든 영적인 것들은 창세기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으며, 성경의 어떤 책을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공급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어떤 책을 사용해도 사람들을 공급할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정한 방법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신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공과를 그다지 배우지 못했고 자신의 됴됨이와 일처리의 경험에 있어서 매우 미숙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어떤 형제들은 성도들을 인도하여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들여 주님과 교통하게 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게 한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바꿀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들의 열심도 좋다고 수시로 칭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식적으로 칭찬해서는 안 되며, 더 적극적으로 격려하여 다른 방면들도 채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동역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봉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것이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방법을 매우 존중해야 한다. 주님의 눈에 나의 이 부분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그 부분보다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의 그 부분을 더욱 존중해야 하는데, 이는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결코 자신의 그 부분을 너무 중요시하여 다른 사람의 그 부분을 밟아도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돌아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주님께 죄짓는 이단이어서 주님의 일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셔서 이것이 생명의 문제이고 그 안에 파쇄와 겸손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동일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며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모두 옳은 것이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과 형제들이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목적은 옳은 것이다. 당신이 그의 방법을 따라 할 수 있고 그도 당신의 방법을 따라 할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방법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을 때, 당신은 축복이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방법을 따라도 문제가 없고, 그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방법

을 따라도 문제가 없다. 이 둘은 모두 가능하며, 결코 어떤 방법에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몸의 느낌이 강해질 때 봉사 가운데서 건축을 가져옴**

형제들은 공과를 배워야 하고, 자아가 과쇄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분의 일도 광대하며 여러 방면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한 일들을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참으로 주님께 죄짓는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밟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몸의 느낌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되며, 또한 우리 안에서 건축이 산출될 수 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의 씨앗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우리 가운데 뿌려졌고 어느 정도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나는 함께 이 길을 가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이러한 상황을 절대적으로 유죄판결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과 참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다루심을 받고, 얼마나 공과를 배웠으며, 어느 정도의 생명의 체험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과쇄를 받아들이고 생명 안에서 자라며 좋은 공과를 배웠다면, 이러한 일들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로들이 요한복음을 추구하자고 했지만 지역 책임자가 그 책이 너무 길다고 말하여 장로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동역의 느낌은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다. 일단 동역의 느낌이 약화되면 더 이상 몸의 건축이 강화되기를 바랄 수 없다.

만일 어떤 지역 책임자가 공과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반대한다면, 그 지역의 성도들도 분명 반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앞장서서 많은 의견들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는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인도해서 열매 맺는 동역의 봉사를 가질 수 있겠고, 또한 좋은 건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깊은 공과를 배워야 한다. 몸의 동역 안에서 각 사람은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밟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한 것과 조화시켜 그리스도의 몸에 공급이 되게 하고, 몸이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몸의 동역의 느낌은 갈수록 달콤하게 될 것이고, 몸의 건축도 더 견고하게 될 것이다.(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 29-56쪽)